

임부의 성 태도와 성 만족과의 관계

이영표* · 김신정** · 정금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이며,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 성은 시대와 형태를 초월하여 인간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존립해오고 있다(이순정, 1990). 성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과정에 있어서 기본적 욕구이다(김상욱, 남철현, 1992). 이는 인간의 발달은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성은 모든 발달단계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성은 인격과 결합되어 있고 생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신체, 정신적 건강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정금희, 1999).

전통적으로 '성'이라 할 때는 성교(sexual intercourse)를 의미하였으나, 성은 생식능력과 신체 발달은 물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아, 즉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태도, 가치, 느낌, 신념 등 인간의 전면적인 측면을 포함한다(양순옥, 1999). Miller와 Telljoham(1992)은 섹실리티(全性, sexuality)로서 성은 섹스(sex)로서의 성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랑을 주는 능력, 개인의 자존심과 주체성, 성적 건강에 신체, 정서, 사회적 측면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

력과 관련이 있으며 관계(relationship), 가족, 사춘기, 성장과 발달, 생식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 건강이란 성격, 의사소통, 사랑을 풍부히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은 성적 존재로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측면을 통합한 성 정보를 받고, 생식 뿐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성적 관계를 수용할 권리를 말한다(WHO, 1975).

성생활은 인간이 성적 존재로서 성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성행위는 심리적 자극과 신체적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 성행위에 따른 인간의 성 반응은 신체적, 심리적 자극이 척수를 거쳐 대뇌로 전달되어 요골 천골부의 척수로 연결되어 통합됨으로써 신체, 정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성생활 자체가 이미 생리·심리·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영위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인간 성생활에 유기적으로 작용되는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성생활 만족정도가 결정된다(장순복, 1989).

여성은 성생활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는데, 일단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한 여성은 성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양희관, 1993). 이런 부정적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관여되는데 임신은 부부가 연인에서 부모가 되는 예비단계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기도 하고, 임신동안 성행위가 태아에게 손상을 주거나

*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수간호사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5월 22일 심사일 7월 31일 심사완료일 10월 10일

조기진통을 가져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Masters & Johnson, 1971). 또한 우리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임부가 실천해야 할 태교 내용으로 금욕을 제시하였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임신 중 성행위를 금하기도 하였다. 반면 최근 보고에 따르면 양수막이 태아를 보호하는 동안 태아가 손상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전 임신기간동안 성생활을 지속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Klebanoff, 1984; Wilkerson & Bing, 1988; 신희철, 1991). 그러나 많은 임신부들은 산전간호를 받는 동안 남성 의사에게 성 문제를 토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성 건강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임신동안 임부가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산호중재가 필요하다.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야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건강전문가들은 성(sexuality)을 각 개인의 전체 건강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Mims, Brown, Lubow, 1976). 현재까지는 여성의 생식이나 출산, 감염 등과 관련된 신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성 건강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성 만족의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상 임신동안의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Robson, Brant, Kumar, 1981). 국내에서 실시된 임부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성생활과 불안(상성희, 1983; 박영숙, 1985), 성생활 만족요인(양희란, 1993), 성생활에 관한 조사연구(김윤미, 1996) 등 소수만이 보고되고 있어, 임부의 성 건강과 관련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사는 여성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위치에 있으며(정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성 만족은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의 건강한 성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시하고 대상자 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 태도와 만족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 태도와 만족정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와 만족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오늘날 성(sexuality)은 인간발달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평가되면서 전인적적, 통합적인 부분으로 보고있다(Judith, Anita, Leach, 1978). 여성에게 성은 남성과의 마찬가지로 생리, 심리, 사회, 육체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율적인 것이다(정동철, 1985; 유영주, 1984).

성생활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성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장애가 생기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의 병영이 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성생활은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 하나가 성에 대한 태도이다(Derogatis, 1980). 성 태도란 성에 대한 가치, 신념의 표현 형태로써 일단 형성되면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고영복, 1973) 이는 개인의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고 성 욕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Meclosky, 1976).

부부사이의 성행위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제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임신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정상 생리 과정으로 이 기간 동안 임부의 육체, 정신, 사회적 건강은 물론 태아의 정상 발육과 안전분만이 도모되어야 한다(강정희, 1983). 그러나 임신 동안에 초래되는 많은 신체 변화와 심리 갈등은 성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대다수의 사회·문화적 또는 종교적인 관습은 임신중 성생활을 금하는 경향과 함께, 임신중의 성 행위가 태아와 산모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임신한 임부의 성생활에 위축을 가져온다(신희철, 1991).

임부의 성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초기와 말기에 성 욕구, 성 반응, 성교 횟수, 절정감 등이 감소했으며, 특히 임신말기에 전혀 성교를 하지 않는 부부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Solverg, Butler, Wanger, 1973). 국내 연구에서도 임부의 성생활에서 성교 횟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금욕하는 임부는 임신기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있다(김윤미, 1996). 그러나 Reamy와 Daniell(1982)의 연구에서는 임부의 성욕구, 성교 횟수, 성생활 만족 및 절정감의 빈도가 임신 초기와 말기에 감소하

였으나 임신 중기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Masters와 Johnson(1966)은 임신 초기와 말기에 성 욕구와 성교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료전문가에 따라서도 임신 초기와 말기의 성교는 유산, 조기파수, 염증 등의 이유를 들어 성생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최연순 등, 1980), 한편으로는 점적 출혈, 통증, 유산의 경험을 제외하고 임신 말기의 마지막 주까지 성교를 절제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하고 있다. 임부는 오히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임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감각을 느끼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복부의 증대가 임신 5개월까지는 전혀 성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욕이 높아진다고 한다(하영수, 1979). 그러나 DeGarmo와 Davidson(1976)은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로 남편에게 성적 매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된 두려움이나 매력이 상실된다는 감정으로 성적 관심과 섹스행위가 감소된다고 하였다. 임신 말기에 20%의 여성에 있어서 복부 증대로 인한 외모의 변화로 매력을 상실했다고 느끼며 이로 인하여 성적 관심과 섹스행위 감소가 있었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Masters & Johnson, 1966). 또한, 임신 초기의 심한 입덧, 피곤, 유두 긴장감, 불안 등이 원인이 되어 부부간의 성생활이 방해를 받으며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복부 돌출로 인한 압박감, 불편감, 호흡의 문제로 7, 8개월까지 다시 성욕이 감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부의 58%가 임신 중에 매력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포옹, 자위 등의 섹스행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Perkins, 1982).

남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 욕구가 감소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임신한 아내와의 성교가 부도덕하다는 믿음, 섹스행위를 태아가 관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오는 불안, 음성이 태아를 손상시킬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이다. 그러나 남편들은 성 욕구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Bittman & Zalk, 1980). 이처럼 임신 중 임부나 남편과 관련된 성 욕구나 섹스행위에 대한 보고에서도 의료 전문가나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볼 수 있다.

성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성에 대해 많이 알고 성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면 성적 상황(sexual situation)에 대해 편안하게 중재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Tyana, 1970), 이와 관련하여 Terman(1983)은 성과 관련된 부적응의 문제는 대부분 성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태도에서 근

본적으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임부의 성생활 만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성 태도, 배우자의 지지, 성적 행위의 빈도 등으로 밝혀졌는데, 이 3개의 요인 중 성 태도가 가장 중요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양희란, 1993). 또한 성생활의 불만족은 부부간의 성 기능 장애보다도 '내화가 적다', '신상을 풀 수 없다', '성적인 욕구나 관심이 적다'는 문제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는데(최연순 등, 1980), 성 태도는 성적 대화이고 이는 배우자의 지지로 연결된다고 볼 때 성 태도가 성생활 만족에 관계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양희란, 1993). 이에 대해 Cole(1975)은 인간의 성생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되나 올바른 성 태도가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기본욕구로서 여성의 경우, 임신과 관련되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자아성취를 돕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전문인은 임신동안 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의 성생활은 만족스러운 부부생활과 임부나 태아 모두에게 건강한 임신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건강관리 상황에서 사회적인 금기나 부끄러움이나 간호사의 무관심으로 대상자들은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현실이다(장순복, 1996). 따라서, 임신과 관련된 여성의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간호 연구를 통한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상임부의 성 태도와 성 만족정도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신이나 분만과 관련된 문제나 경험은 대상자의 성적 태도나 행동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임부, 태아 양측 모두 의학적 합병증이 없으며 자연유산이나 기형아 분만, 사산의 경험이 없는 정상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221명의 정상임부에게 설문 조사하였으나 이 중 누락 항목이 있는

10부를 제외한 총 21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 자료는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C시에 위치한 H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정상 임부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임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 스스로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였다.

4. 연구도구

1) 성 태도

성 태도의 측정은 성에 대한 가치, 신념의 표현 형태로 주로 부부간의 성생활, 성적 자극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순복(1988)이 D.S.F.I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도구를 번역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도의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 신뢰계수 Chronbach's α 값은 선행연구에서 0.73(장순복, 19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1로 나타났다.

2) 성 만족

성 만족의 측정은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상호관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하여 임부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서 김숙남 등(199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척도의 1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7-6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숙남 등(1997)의 연구에서 신뢰계수 Chronbach's α 값은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6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유의성 판정은 5%수준으로 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성 태도와 성 만족정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확인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의 차이는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연령은 20~41세이고, 평균연령은 29.8세이며, 평균 결혼 연령은 26.5세이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가 53.1%, 대졸이상이 46.9%를 차지하였으며 배우자의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65.4%이었다. 월수입은 100~150만원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75.8%가 전업주부이고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는 62.1%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1주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같이 지내는 날은 83.4%가 항상 함께 있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90.0%가 이번 임신을 희망하였다고 하였으며 임신력은 경임부가 61.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임신기간에 있어서는 임신 초기가 11명(5.2%), 임신 중기가 94명(44.5%), 임신 말기가 106명(50.2%)이었다.

2.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 태도는 40점 만점에서 평균 27.60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13점에서 최대 36점까지로 나타났다(표1). 본 연구 대상자의 성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5점 척도로 8문항 중 「내 배우자의 몸을 만지고 껴안으면 기분이 좋다」 평균 4.23점, 「성기를 만지는 것은 정상이며 건강한 행동이다」 평균 3.81점, 「부부간의 다양한 성경험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평균 3.79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1).

대상자의 성 만족 정도는 68점 만점에 평균이 54.11점으로 나타났고, 최소 26점에서 최대 68점의 다양한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표2). 성 만족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4점 척도로 17 문항 중 「나는 성행위시 부부사이의 친밀감을 느낀다」 평균 3.53점, 「성행위 후 남편의 애무는 깊은 애정을 더 해준다」 평균 3.52점, 「남편의 애무는 나를 흥분시킨다」 평균 3.48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

(n=211)

문 항 내 용	평균(SD)
1. 이성의 성기를 보는 것은 즐겁다.	2.86(0.82)
2. 성기와 입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기만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즐겁다.	2.79(0.99)
3. 성기를 만지는 것은 정상이며 건강한 행동이다.	3.81(0.69)
4. 성에 관한 영화를 보는 것은 성교를 자주하게 한다.	3.18(0.93)
5.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좋다.	3.29(0.87)
6.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기를 만져주는 것은 성교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	3.65(0.73)
7. 내 배우자의 몸을 만지고 써안으면 기분이 좋다.	4.23(0.58)
8. 부부간에 다양한 성경험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3.79(0.70)
총점 평균	27.60(3.63)

<표 2> 대상자의 성 만족 정도

(n=211)

문 항 내 용	평균(SD)
1. 나는 성행위시 부부사이의 친밀감을 느낀다.	3.53(0.61)
2. 남편의 몸이 깨끗한 것은 나의 성적 흥분을 돕는다.	3.22(0.95)
3. 남편은 나의 성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18(0.78)
4. 성행위때 남편이 하는 언어적 표현은 나를 더 흥분시킨다.	2.76(0.98)
5. 남편의 애무는 나를 흥분시킨다.	3.48(0.64)
6. 남편과 둘만이 있는 오붓한 분위기는 더 흥분된다.	3.01(0.92)
7. 성행위 전 남편과의 대화는 우리를 친밀하게 한다.	3.41(0.73)
8. 성행위 후 남편의 애무는 깊은 애정을 더해준다.	3.52(0.72)
9. 남편에 대한 믿음은 성 만족을 더 크게 한다.	3.42(0.80)
10. 성행위시 다양한 체위는 만족감을 더해준다.	2.81(1.00)
11. 성행위시 남편은 나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3.40(0.67)
12. 성행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3.16(0.84)
13. 성행위시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	3.01(0.77)
14. 남편은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2.97(0.79)
15. 나는 남편에게 성적 요구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83(0.91)
16. 남편과의 성행위 횟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13(0.79)
17. 남편이 주도하는 성행위는 나를 편안하게 한다.	3.26(0.71)
총점 평균	54.11(7.60)

3.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만족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만족과의 관계는 매우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51$, $p=0.001$). 이는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성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표 3).

<표 3>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만족 정도와의 관계

(n=211)

구 분	성 태도
성 만족	$r = 0.51$ ($p = 0.0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4).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는 대상자의 교육정도($t = -4.49, p = 0.00$), 월수입($F = 3.45, p = 0.01$), 직업여부($t = -2.06, p = 0.04$), 배우자의 교육정도($t = -2.87, p =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월수입이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의 교육정도가 내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 만족 정도는 대상자의 교육정도($t = -0.22, p = 0.00$), 월수입($F = 3.11, p = 0.02$), 배우자의 교육정도($t = -2.59,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즉,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월수입이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배우자의 교육정도가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와 성 만족의 차이

(n=211)

일반 특 성	구 분	실 수	성 태도				성 만족			
			평균	(SD)	t or F	P	평균	(SD)	t or F	P
연령 (세)	20 - 29	101	27.53	(3.57)	-0.25	0.797	53.66	(8.29)	-0.22	0.821
	30 - 41	110	27.66	(3.70)			54.22	(6.93)		
교육 정도	고졸이하	112	26.56	(3.56)	-4.49	0.000***	52.10	(7.68)	-4.23	0.000***
	대졸이상	99	28.74	(3.37)			56.38	(6.68)		
월수입 (만원)	-100	27	26.22	(4.31)	3.45	0.017*	51.07	(9.82)	3.11	0.027*
	100-150	95	27.44	(3.53)			53.87	(7.58)		
	150-200	55	27.61	(3.36)			54.29	(6.60)		
	200-	34	29.11	(3.33)			56.91	(6.32)		
직업	무	160	27.31	(3.70)	-2.06	0.040*	53.75	(7.95)	-1.21	0.227
	유	51	28.50	(3.27)			55.23	(6.31)		
종교	없음	80	27.77	(3.80)	0.17	0.952	53.38	(7.66)	1.29	0.276
	기독교	56	27.55	(3.36)			55.85	(7.19)		
	천주교	30	27.50	(3.85)			54.70	(7.44)		
	불교	42	27.33	(3.54)			52.88	(7.87)		
	기타	3	28.66	(5.03)			52.33	(10.01)		
결혼연령 (세)	19 - 25	76	27.39	(3.97)	0.77	0.513	52.88	(8.94)	2.10	0.101
	26 - 30	114	27.75	(3.41)			54.31	(6.78)		
	31 - 35	17	27.00	(3.60)			57.52	(5.96)		
	36 - 39	4	29.75	(3.50)			57.25	(1.50)		
배우자 교육정도	고졸이하	73	26.63	(3.88)	-2.88	0.004**	52.27	(8.53)	-2.59	0.010*
	대졸이상	138	28.11	(3.40)			55.08	(6.90)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항상	176	27.42	(3.72)	1.65	0.193	54.06	(7.86)	0.23	0.798
	주2-3일	27	28.18	(3.22)			53.92	(6.81)		
	기타	8	29.50	(2.00)			55.87	(3.56)		
임신회망 여부	원함	190	27.73	(3.53)	1.62	0.104	54.24	(7.52)	0.76	0.443
	원치않음	21	26.38	(4.32)			52.90	(8.37)		
임신기간	임신초기	11	27.54	(2.91)	0.43	0.649	55.45	(3.61)	0.44	0.645
	중기	94	27.35	(3.51)			53.62	(7.18)		
	말기	106	27.83	(3.81)			53.40	(8.25)		
임신력	초임부	81	27.70	(3.67)	0.10	0.748	54.50	(7.49)	0.35	0.555
	경임부	139	27.53	(3.62)			53.86	(7.69)		

V.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가 다른 연구 대상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점수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는 평균 27.60점(40점 만점)으로, 남명희(1999)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평균 15.34점(35점 만점)과 비교할 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인 정상 임부가 지각하는 성 태도가 대학생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성 만족 정도가 평균 54.11점으로, 장순복(1988)의 자궁절제술을 받은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평균 34.24점 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로 성에 대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궁절제술 한 부인의 성 만족 정도는 일반 여성이나 정상 임부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같은 임부를 대상으로 한 김윤미(1996)의 연구에서 성 만족 정도는 평균 28.5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 보다 성 만족 정도가 크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같은 임부 대상자의 성 만족 정도에 있어 큰 차이는 시대적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대상자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내 여자애의 몸을 만지고 껴안으면 기분이 좋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부들이 임신이 진행될수록 배우자와의 신체 접촉에 대한 욕구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이 기간동안 껴안기를 좋아한다는 Mueller(1985)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임신동안 부부가 성교는 물론 서로 껴안기와 같은 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부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 만족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나는 성행위시 부부사이의 친밀감을 느낀다」, 「성행위 후 남편의 애부는 깊은 애정을 더 해준다」, 「남편의 애무는 나를 흥분시킨다」 등과 관련되어 성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일방적인 태도보다는 여성에 대한 노력과 배려가 수반되어질 때 임부의 성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에 다양한 성 경험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라는 성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긍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에, 「성행위시 다양한 체위는 만족감을 더해준다」라는 성 만족과 관련된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 정도를 보였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대상자가 임신동안 부부간의 성 만족 정도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체위에 대

한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효과적 간호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사는 임부와 배우자의 성 건강과 관련된 간호를 계획할 때 긍정적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성 표현 방법이나 서로의 노력과 배려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만족과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높은 상관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임부의 성 만족도와 관련되어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선(1987)의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이 결혼 후 성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성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임부에게 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상담이나 교육을 하여서 긍정적 성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임부의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질적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임부의 성 태도는 성교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나 아기의 존재, 피로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민감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임부뿐 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임신기간에 따른 태아의 발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부의 피로를 완화하고 극심한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활동과 휴식 제공에 대한 간호중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기나 그 이전에 습득된 성 지식에 따라 주로 결정되며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의 인격적 요소는 물론 결혼 후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성교육이 성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방미라, 1990; 김진선, 1995; 한유정, 박인혜, 1996; 김영희, 이명화, 1997; 하숙영, 김정남, 1999)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교육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 태도와 성 만족도와 관련된 성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성 태도의 평균 점수가 최저 13점

서 최대 36점까지의 범위로 나타났고, 성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최소 26점에서 최대 68점으로 평균 점수 범위의 폭이 크고 다양한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간의 성에 대한 태도와 만족 정도에 격차가 크고 개별 차이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임신 동안 성과 관련된 간호중재시 구체적인 시도를 통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와 만족 정도의 차이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가 대상자의 교육 정도, 월수입, 직업여부, 배우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월수입이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의 교육 정도가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성에 대한 태도나 만족 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교육정도가 높았을 때 성 태도가 긍정적이고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장순복 등(1998)의 연구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교육정도가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성 만족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요소가 성 태도나 성 만족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와 배우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성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지식정도에 따라서 성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대상자의 월수입도 교육정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월수입에 따른 차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활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Rainwater(1966)는 사회적으로 중상이나 중류층인 경우 하류층보다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여성의 성 만족은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만 보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 태도는 성교육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일단 형성되면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 수준이 낮은 대상자일수록 임신과 관련된 성교육이나 성 상담 등의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간에 따른 만족 정도를 검증한 결과, 임신이 진행될수록 대상자의 성 만족정도는 감소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Robson 등(1981)은 임신 전과 임신 후를 비교한 결과에서, 임신 후에는 임신 전과 비교하여 성교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보고하였으며 Mueller(1985)는 임부들은 임신이 진행될수록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하므로 자신이 똥똥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서 이러한 감정이 성적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 임신기간과 관련된 성 만족 정도와의 관계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상임부의 건강한 성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상 임부의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C시에 소재한 H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정상임부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로는 D.S.F.I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를 번안한 성태도 도구(Chronbach's α = 0.71)와 김숙남 등(1997)이 개발한 성만족 도구(Chronbach's α = 0.8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 correlation, t-test, ANOVA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은 평균 29.8세이며, 교육정도는 고졸이하가 53.1%이었고 월평균 수입은 100-150만원이 45%로 가장 많았다. 성임부가 61.6%로 대부분이었으며, 임신초기가 5.2%, 중기 44.5%, 말기 50.2%이었다.
2.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는 평균 27.6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성 만족 정도는 평균 54.11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만족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51$, $p=.000$). 대상자의 성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성 태도 정도는, 대상자의 교육정도($t=-4.49$, $p=0.00$), 월수입($F=3.45$, $p=0.01$),

직업여부($t = -2.06, p = 0.04$), 배우자의 교육정도($t = -2.87, p =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성 만족 정도는 대상자의 교육정도($t = -0.22, p = 0.00$), 월수입($F = 3.11, p = 0.02$), 배우자의 교육정도($t = -2.59,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 인간 경험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서 임신은 적응의 시기이므로 임부는 이 기간에 정보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일차 건강관리 제공자로서 간호사는 임부에게 성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임부의 산전 간호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를 포괄하여 개인적 상황에 적절한 접근을 통해 임부와 배우자가 성적인 관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임신한 부부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2.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도 포함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정희 (1983). 임신부의 성생활과 불안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13(1), 22-32.
- 고영복 (1973). 현대 사회 심리학. 서울 : 범문사.
- 구자성 (1997). 자궁적출술을 한 여성의 성지식과 수술 후 성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상옥, 남철현 (1992).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 행태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42-65.
- 김숙남, 장순복, 강희선 (1997). 여성의 성만족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7(4), 753-764.
- 김영희, 이명화 (1997). 성교육이 초등학교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2), 255-275.
- 김진선 (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간호학회지, 1(2), 174-189.
- 김윤미 (1996). 임부의 성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이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0(1), 239-251.
- 박형숙 (1985). 임신부의 성생활 실태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8(6), 737-745.
- 방미라 (1990).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48-58.
- 송충숙 (1990). 성생활 정보 제공과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신희철 (1997). 임신중의 성생활.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34, 905-909.
- 양순옥 (1999). 성과 성문화 I: 성이란?, 성건강 관리 지도자 교육 워크샵 교재.
- 양희란 (1993). 임신부인의 성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이윤선 (1987).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한국보건학회지, 3(1) 85-100.
- 유영주 (1984).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 장순복 (1988). 자궁 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장순복 (1996). 기혼 여성의 성적 자율성. 간호학탐구, 5(1), 71-88.
-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대한간호학회지, 28(1), 201-209.
- 정금희 (1999). 청소년과 성. 한국모자보건학회 6차 학술대회연세집.
- 정동철 (1975). 결혼과정: 그날을 위해 삶을 위해. 서울: 샘터.
- 최연순 등 (1980). 모성간호학. 서울: 수문사.
- 하숙영, 김정남 (1999). 성교육이 여자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0(1), 227-237.
- 하영수 (1979). 모성간호학. 서울: 수문사.
- 한유성,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과학논집, 1(1), 23-40.
- Bittman, S., & Zalk, S.R. (1980). Expectant Fathers. New York : Ballantine.
- Coles, T. (1975). Sexuality and physical disability. Arch. Sex. Behav. 4(4).

- DeGarmo, E., & Davidson, K. (1976). Psychological effects of pregnancy on the mother, father, marriage and family. In Current Practice in Obstetrics and Gynecologic Nursing, edited by L.K. McNall and D.T. Galeener. St. Louis : Mosby.
- Derogatis, L.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114-131.
- Judith H., Antia M.L. (1978). Comprehensive psychiatric Nursing. McGraw-Hill Book com.
- Klebanoff, M.A., Nugant, R.P., & Rhoads G.G. (1984). Coitus during pregnancy: Is it safe?. Lancet, 2(8408), 914-917.
- Masters, W.H., & Johnson, V.E. (1966).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 Little Brown Com.
- Masters, W.H., and Johnson, V.E. (1971). Human Sexual inadequacy. Boston: Little Brown.
- Mecloskey, J.C. (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ory. Nursing, 76, 68-72.
- Miller, D. F., Telljoham, S.K. (1992). Health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Wn.C. Brown Pub.
- Mims, F.H., Brown, L., Lubow, R. (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ursing Research, 25(3), 187-191.
- Mueller, L.S. (1985). Pregnancy and sexualit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Neonatal Nursing, 14(4), 289-294.
- Perkins, R.P. (1979). Sexual behaviors and response in relation to complications of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Gynecology, 134, 498.
- Rainwater, L. (1966). some aspects of lower class sexu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22, 96-107.
- Reamy, K.,white, S.E., Daniell, W.C. (1982). Sexuality and pregnancy. Journal of Reproduction Medicine, 27, 321-327.
- Robson, K.M., Brant, H.A., Kumar, R.(1981). Maternal sexuality during pregnancy and after childbirth. British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88, 882-889.
- Solverg, D.A., Butler, J., & Wagner, N.N. (1973). Sexual behavior in pregnanc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88, 1098-1103.
- Terman, L.M. (1983). Psychological factors in marital happiness. New York:Mcgrow Hill Book co.
- Tyana, P. (1976). Sexuality of Nurses : Correlation of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Nursing Research, 25(4), 286-292.
- Wilkerson, N.N. & Bing, E. (1988). Childbirth Education. Philadelphia : W.B. Sunders Com.

-Abstract-

Key concepts : Pregnancy women, sexuality, Sexual attitude, Sexual satisfaction

Pregnant Women's Attitude and Satisfaction for Sexuality

Lee, Young Pyo* · Kim, Shin Jeong**
Jeong, Geum Ha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and satisfaction for sexuality of pregnant women was observed to provide rationales of nursing intervention to help promote healthy sexual lifestyle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 Head Nurse, Department of Obstetrics Nursing, Chuncho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s e-mail: ghjeong@sun.hallym.ac.kr

211 obstetric outpatients of H university hospital in C city, Korea from February to May 1999. The research tools were D.S.F.I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in Korean, Chronbach's $\alpha = 0.710$) and Sexuality Satisfaction Method (Kim, 1997, Chronbach's $\alpha = 0.864$).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t-test and ANOVA by Windows S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ean age of the subjects were 29.8; the average score of attitude to sex was moderate (27.60), and that

of satisfaction sex was high (54.11); the positive relationship was shown between attitude and satisfaction for sexuality ($r=0.51$, $p=.000$); the higher educational and income levels of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were the better the attitude and satisfaction for was: professional women had better attitude than housewive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study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related with the sexuality of pregnant women.